

# 내년 예산 1조6445억원 편성

### 군산시, 올해보다 0.6% 증액... 전 시민·전 분야 사각지대 최소화 중점

군산시는 27일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전 시민, 전 분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정적인 삶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중점으로 1조 6,44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0.6%가 증가한 1조 6,445억원으로 일 반회계 1조 4,911억, 특별회계는 1,534 억원이다.

주요 재원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6,870억(41.8%), 지방교부세 4,958억 (30.2%), 지방세 1,931억(11.7%), 세외 수입 1,474억(8.9%), 조정교부금 508억 (3.1%) 등으로 지방세수입 5억원 증가 등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경 기채적으로 인한 국세감소로 지방교부 세는 △322억 감소했다.

일반회계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5,909 억원(39.8%)을 편성했으며 농림해양수 산 분야 2,142억(14.4%), 환경 분야 929억(6.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867억(5.8%) 순이다.

내년 예산안은 국세감소로 인한 교 부세 감액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했 으며 행정 필수경비 최소화, 신규사업 보다는 절차 이행 등으로 추진이 지난

했던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진행 준 공 단계 사업들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다.

건전재정 운용을 견고히 하면서도 시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제각 예산에 대한 반영은 놓치지 않았다. 가계부담은 줄이고 골목상권은 살리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325억원을 투입 △군산사랑상품권 3,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 례보증 지원사업 10억원을 편성해 200 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따른 대출이자 보전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 차보전 지원 15억원을 확대 편성했으 며,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중·고등 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을 위해 24억원을 편성했다.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지원 106억원, △조선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지원 5억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 10억원 등 잠재된 지역산업 회복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및 정착을 위 해 △만민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24 억원, △군산의 봄' 조선행기기자재산 업 청년일자리 16.7억원, △'그린산업 육성 청년일자리 10.5억원 △청년지역 정착 지원 10억원 등을 반영했다.

시가 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 도록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75.8억원, △트래블라운지 조성 27억원, △비응마파지길 명소화사업 14억원 등을 관광 분야에 편성하고,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49 억원, 생말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5 억원 등을 투입해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서비스 향상을 기대한다.

그 외에도 시민들의 의료 편의 도모 를 위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50억 원,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109억원 등 을 반영하고 △구양지구 풍수해 생활 권 정비 사업 28억원, △재해취약지역 (급경사지)정비에 총 50억원등을 반영 해 시민안전도시 구축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내년 예산은 유 레없는 세수 감소 상황 속에서 시민 위주의 사업들을 최우선으로 반영하 고 기본에 충실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 성해 앞으로 나아갈 탄탄한 기반 마련 에 중점을 두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군산시의 건전재정 기초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군산의 미래를 위 해 꼭 필요한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하 고 사각지대 없는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노사민정이 원하청 상생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과 혁신의 계기로 만들고자 힘을 합쳤다.

## 원하청 공동선언문 채택

### 익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원하청 상생 협력 다짐

익산시 노사민정이 원하청 상생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과 혁신의 계기로 만들고자 힘을 합쳤다.

시는 27일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해 원하청 상생 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결의하는 '익산시 노사민정 원하청 공동선언문 채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올해 노사민정 각계각 층의 토론과 협의 끝에 원하청 도출 된 일·하청이 상생하는 지역 공동체 확산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보 호를 주요 내용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정현을 익산시장, 안현 석 민주노동당 의장, 전세성 한국노동 의장 김원오 상공회의소 회장 이후송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 등 우리 지역 의 노·사·민·정 대표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원하청 상생협 력을 위해 공동선언문을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한 노사민정 토론회 및 워크숍 취약 계층 노동자 보호 지원사업 등 노사민 정 협력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익산시 노사민정 원하청 상생협력 공 동선언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선언문에 따라 △배려를 통한 노동 격차가 해소된 희망알터 확산 △양극 화와 경제위기에 대처한 사회안전망 구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원하청간 불공정거 래 근절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민 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공동체 구현 등 세부 실천과제를 노사민정 각 단체가 하나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 하기로 다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지금은 익산시 경제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간의 화합과 신 뢰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상병수당 2단계 혜택 전국 '최고'

익산시 상병수당 2단계 도입 혜택이 전국 시범 운영 지자체 중 최고로 나 타났다.

시는 상병수당 도입 5개월 만에 전 국 시범 지자체 4곳 중 가장 높은 지급 건수를 보이며 총 231건, 1억3천9백 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2단계 시범 타 지자체의 평균 지급 내용이 145건, 1억 백만원(11월19 일 기준)과 비교시 익산시는 지급 건 수가 59% 높게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 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7월 2단계 시범사업 지자 체로 선정돼 일일 4만3,180원, 최대 연 간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 다.

시는 유급 병가가 없는 소규모 취약 사업장 근로자 전종시장 소상공인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 중 상병수당을 알 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 하고자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했다.

도로 전역에 현수막 홍보, 언론보도, 지면광고, 전광판, 시정소식지 게재, SNS 홍보뿐만 아니라 입원 병상 보유 병원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상병수 당을 알렸다.

/익산=이재춘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건립 활동 전개

정현을 익산시장은 27일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을 위 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이날 정시장은 지난 5월 실시 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한센인에 대한 의료서 비스 시설 지원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건립 타 당성 조사 용역 결과 150병상 기준 순현재가치(NPV) 195억 원, 비용대비 편익(B/C) 1.31으 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 과가 나왔다.

현재까지 한센인의 치료 및 진료, 요양에 있어 사각지대에 노출된 한센인 고령자들은 한센병의 합병증인 신장질환, 간 질환, 심장질환 등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지만 적절 한 통합의료서비스 이용 및 요 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무제한 운영

익산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무제한으로 변경 운영한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 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1일 5회로 한정하여 받아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 라 확대운영 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동일 장소에서 1분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 하는 제도이다.

시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횡 단보도, 버스 승강장, 소화관, 교차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 역, 인도(보도) 6개 즉시 단속 구역과 안전지대 주차와 이중 주차 2개 기타 구역에 대해서 도 즉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 다.

불법주정차 신고 가능시간은 소화전은 24시간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 외 지역은 오 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이다.

/익산=이재춘기자

## 내년 '힘찬 변화, 희망찬 도약의 시정' 제시

### 강임준 군산시장, 시정연설서 미래 먹거리 발굴·정주문화 개선 강조

강임준 군산시장이 27일 열린 제260회 군산시 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 설을 통해 올해 주요성과와 내년 도 시정운영 방 향 및 예산안을 설명했다.



업 기업 14개사, 6조 818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출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개시 △서해안 대표 수산물관광시장 '군산수산물센터' 개장 △역대 최대 도심 녹지 사업 '도시바 람길 숲' 착공 등을 꼽았다.

특히, 기후 변화로 더욱 강력한 태 풍, 역대급 집중호우 등의 재해가 빈 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여름 3일 간 500mm라는 물 폭탄에도 시민 재산 보호 및 인명 피해 제로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안전 일등 도시'로서 위상 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중점추진 시정 방향으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 도모 △군산다운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매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지역 인 재육성, 교육 으뜸 도시 조성 △츄츄

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도시 조성 △시민과 함 께 실천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정 혁신 지향 등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민선 8기 중반기 인구감 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선제 대 응을 위해 '키움 으뜸 가족행복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수립했다"며 "내 년부터는 인구대응담당관 신설을 통 해 아이와 청년을 키우고, 가정과 지 역의 성장을 돕는 핵심사업을 발굴하 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 혔다.

이어 "소소하지만, 필요성이 큰 사 업과 시민이 함께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키움 으뜸 인프라 구축까지 청년 이 지역에 정착하고 아이랑고 키워며 살기 좋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고 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